

'카드도 온라인으로' 비대면화 추세 가속화

(非對面化)

카드업계의 비대면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카드 발급 모바일 결제 등 금융 업무를 비대면 환경에서 처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신청만 하면 현금 서비스까지 받는 모바일카드의 당일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어 온라인 카드발급 '우대혜택' 적용도 올해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등 비대면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온라인상에서 직접 카드 발급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회비 10% 이상의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여신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은

직접 카드 발급 고객 연회비 10% 우대 혜택 제공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모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을 하는 발급자는 오프라인에서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만드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제 카드사들은 해당 규정을 이유로 신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온라인 신청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행사성으로 한시적으로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에 따른 차이는 없다"며 "연회비 10% 한도도 있기 때문에 따로 혜택을 적용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도 "온라인 신청 고객에게 연회비의 10% 한도 내에서 라워드 또는 캐시백 형태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10%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혜택은 주지 못했고, 형태도 한시적인 프로모션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발급 과정을 온라인

화하고 작성하는 실물 문서도 줄이는 일종의 업무 비대면화도 병행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페이퍼 리스'의 이점으로서 업무 처리 비용의 절감 시스템 입력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다만 비대면화 과정에서 기존 카드 방문 모집인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접차 오프라인 모집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 게 될 것"이라며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있겠지만 온라인·모바일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인진수기자



소니, 무선환경에서도 고음질 '히어' 2종 출시

소니코리아는 14일 무선 환경에서도 고음질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 '히어(hear)' 시리즈 블루투스 라인업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시되는 히어 시리즈 블루투스 라인업은 ▲무선 노이즈 캔슬링 스테레오 헤드폰 '히어 온 와이어리스 엔씨(hear on Wireless NC)' ▲무선 스테레오 헤드셋 '히어 인 와이어리스(hear in Wireless)' 2종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블루투스 라인업 2종은 소니의 음향기술이 적용됐다. 유선에서는 완벽한 HRA(High Resolution Audio·고해상도 오디오)를 지원한다. 무선 환경에서도 LDAC 코덱을 통해서 HRA급의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소니가 개발한 신형 드라이버를 탑재해 균형 잡힌 고품질의 사운드를 구현하도록 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히어 시리즈 블루투스 라인업 2종은 차를 블랙, 비리디언 블루, 라임 옐로우, 보르도 핑크, 시나바 레드 등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히어 온 와이어리스 엔씨 38만 9000원, 히어 인 와이어리스 24만 8000원이다.

한편 소니코리아는 히어 시리즈 블루투스 라인업 2종 출시를 기념해 15일부터 18일까지 소니스��어 온라인(storesony.co.kr)과 모바일앱에서 한정 수량으로 예약판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진수 기자

FCA코리아 4개 차종 리콜 결정

국토교통부는 14일 FCA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현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와 오토바이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체로키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과 파워 테일게이트 등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도 앞열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충돌이 감지되면 좌석 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석 안전띠 프리텐셔너는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이다.

리콜대상은 2001년 3월 9일부터 2003년 3월 28일까지 제작된 지프 그랜드체로키, 지프 체로키 승용자동차 741대다.

파워 테일게이트 ECU(전자제어장치) 전기 배선 연결부 수분이 유입돼 파워 테일게이트가 작동되지 않거나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2월 24일부터 2015년 9월 08일까지 제작된 지프 체로키 승용자동차 529대다.

또 브레이크 작동 시 바위가 잡히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인 ABS의 모듈 접지단자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면 ABS나 ESC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나타났다. ESC는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로 자동차의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임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 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돼 오일이 새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9일부터 2015년 5월 6일까지 제작된 지프 컴패스 승용자동차 151대다.

/인진수 기자

친환경 전용차 아이오닉 특별전시

현대차 전북본부, 전북현대 홈 개막전 축하하며

전북현대모터스가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올 시즌 녹색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호택)도 친환경 전용차 모델 아이오닉 전시 특별이벤트를 통해 '녹색 바람'에 가세했다.

전북현대 팀 칼라인 녹색과 잘 어울리는 국내 최초의 친환경 전용차 아이오닉 특별전시를 통해 홈 개막전을 축하하고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우승을 통해 전북현대가 녹색 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모기업인 현대자동차도 친환경 차를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녹색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목적을 뒀다.

또 오랜만에 경기장을 찾은 전북현대 팬들에게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인 아이오닉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다채로운 볼 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개막전 주무대인 전주월드컵경기장

앞 광장에서 열린 이날 특별이벤트에는 국내 최초의 친환경 전용차 모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2대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으며, 많은 축구팬들의 발길이 이어져 성황을 이뤘다.

가족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한 축구팬은 "일반 차에 비해 아직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친환경차를 직접 만져보고 작동 원리까지 알게 돼 매우 유익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상을 위해서라도 친환경차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호택 현대자동차 전북본부장은 "아이오닉은 환경의 소중함과 미래에 대한 우리 현대자동차의 확고한 생각과 방향성을 담고 있는 역작이다. 오늘 특별전시가 이곳을 찾은 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에 친환경차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기자



국내 최초 AI HD 방송 전환 개시

KT(회장 황창규)는 자사 IPTV 서비스인 KT 올레TV의 실시간 방송 채널을 업계 최초로 세 HD화질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소비자들 '정기 예금'에 가장 관심 크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서 전체 조회건수의 34% 달해

다양한 금융 상품 가운데서 소비자들은 정기 예금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한눈에'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것은 정기 예금으로 전체 조회 건수의 34%에 이르렀다.

이어 소비자들은 적금 27.7%, 연금저축 9.8%, 주택담보대출 9.1% 순으로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비교해봤던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상품한눈에는 매일 20일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163개 금융회사의 886개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사

이트다.

지난 13일 기준 금융상품한눈에 방문자 수는 모두 61만명을 달성했다고 금융원은 전했다. 이는 지난 1월14일 문을 연지 두 달만의 기록이다. 지난 2개월간 일평균 1만명 정도가 홈페이지를 방문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협회나 금융회사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여러 권역의 유사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

성인 64% "로봇 내 업무 대신가능"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모바일 설문조사 플랫폼 무이사케이와 함께 성인남녀 361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64.0%는 로봇이 인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업무의 정교성(22.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체력(20.6%), 업무의 완성도(18.7%) 등의 순이었다. 자신의 업무에서 인공지능 로봇과 대결을 벌인다면 '내가 질 것(33.8%)'이라는 의견이 예측할 수 없다(33.7%)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이길 것 같다'고 장담한 의견은 14.1%에 불과했다.

/박용주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